

## 哲學時感

金基錫

實在

哲學은 實在를 思惟한다. 哲學은 思惟를 思惟한다. 希臘哲學은 주로 實在를 思惟하면서 形而上學을 길렀고 獨逸의 理想主義는 주로 思惟를 思惟하면서 認識論 價値論을 내어세운다. 이제 이 思惟마저 어느 意味의 存在로 볼 때 哲學은 그 자신의 빛나는 流域인 希臘및 獨逸에 있어서 한가지로 存在에 대한 思惟를 課題로 하면서 그 迂廻 많은 流床을 흘러온 것이 된다.

哲學은 분명히 지금까지 實在의 學이었다. 또 그것은 久遠히 實在의學이 되지 않았어는 안 된다. 「人間의 理性은 形而上學을 拒否할 수 없다」라는 칸트의 말에 있어서 形而上學이 實在의 學을 意味한다고 보는 한에서 우리 들은 많은 뜻을 외어야한다. 哲學은 實在를 思惟한다. 哲學은 實在의 實在를 思惟한다. 이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哲學은 人間이 가지는 學問의 領野속에서 자기를 原理의 學 根據의 學으로 主張해온다. 一切의 前提를 버리고 一切의 假定을 버서나 存在및 事實을 그 根源性에 있어서 理解, 究明하는것이 哲學이 眞實한 課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實在의 學인 哲學은 어느 사이에 있어서인지 實在에 대한 한 개의 基本假定을 허락해버렸다. 實在를 었던 「하나」로 보면서 實在 그것을 었던 久遠한 것으로 보는 일. 우리들은 實在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過誤를 저들은 哲學으로서 希臘哲學을 든다. 希臘哲學은 두 개의 形而上學을 길러온다. 存在의 形而上學과 生成의 形而上學. 이 두 思索體系는 오랫동안 진실로 오랫동안 서로 다투고 서로 이르켜 주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어디 까지든지 實在를 었던 「하나」로 었던 久遠한 것으로 내어세우는 根本態度를 지니는데서 이 두 實在論은 希臘哲學의 품안에 사이조케 안기는 것이다.

存在의 形而上學과 生成의 形而上學. 存在의 形而上學에서는 모도가 「되 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時間과 運動을 버서나는 久遠한

實在의 世界가 있고 우리들의 눈앞에 버러지는 生滅, 轉變은 모도 이 實在의 世界의 映像假現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生成의 形而上學에서는 모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라고 說明한다. 진실한 것은 부단한 流動, 生成을 經驗한다고 보면서 運動을 通하여서뿐 實在가 그 자신을 久遠히 發展實現시킨다고 가르친다. 이리하여 하나는 「플라톤」의 「이데아」論에서 더욱 잡을 길이 없는 理念의 宮殿을 세우면서 자기를 理想主義라고 부르고 하나는 오늘의 「發展의 論理」에 있어서 「헤-겔」의 辯證法을 顛倒시키는 「놀라운」 轉廻를 보이면서 자기를 現實主義라고 부른다.

우리들은 實在를 었던 「하나」로 보는 見解에 反對한다. 우리들은 實在를 었던 久遠한것으로 보는 見解에 反對한다. 아니 우리들은 먼저 實在를 「있는 것」으로 보는 見解에 反對한다. 우리들은 아득한 存在의 世界속에 들어있다. 이 存在의 世界는 있는데 그치는 世界는 아니다. 그리고 되는데 그치는 世界도 아니다. 이 存在의 世界는 있으면서 되고 되면서 있는 世界가 아니면 안 된다.

存在의 世界속에 었던 크다란 「하나」가 있고 이 크다란 「하나」가 모도를 支配統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라고 해서 「여럿」이 서로 헤어져 있고 헤어져 있으면서 서로 자기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것도 아니다. 우리들이 存在를 바로 理解하고 바로 體驗한다고하면 우리들은 「하나」속에서 「여럿」을 외오고 「여럿」속에서 「하나」를 외오지 않아서는 안 된다. 瞬間속에서 久遠을 외오고 永遠속에서 瞬間을 외오지 않아서는 안 된다. 存在이 世界는 그 뒤에서 그것을 싸는 世界를 가진다. 存在의 背景같은 世界를 가진다. 存在는 그 자신의 背景인 無의 世界와의 聯關에 있어서 깊이 思惟되어야 한다. 存在는 무단히 無를 버서나려고 애쓰고 無는 무단히 存在를 삼키려고 대어 든다. 眞實한 實在는 一이면서 多인 多이면서 一인 一 即 多인것이 아니면 안 된다. 眞實한 實在는 「斷」이면서 「續」인 「續」이면서 「斷」인 非連續이 아니면 안 된다. 眞實한 實在는 有이면서 無인 無이면서 有인 絶對的 否定이 아니면 안 된다.

## 歷史

「歷史는 人間을 만들고 人間은 歷史를 만든다.」이때 이 歷史란 무엇인가. 人間을 만들면서 겸하여 人間에게서 만들어지는 이 歷史란 무엇인가. 歷史는 自然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한다. 歷史가 自然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지 않는 한에서 世界는 한 개의 빛나는 領域을 일흐면서 그 자신 단순한 自然의 世界에 떠러진다.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歷史가 自然과 마조서면서 자기를 歷史로 자기가 마조서는 것을 自然으로 限定함을 본다.

그런데 이 自然이란 본대 었던 것일가. 歷史에 대한 思惟는 自然에 대한 思惟를 부른다. 自然은 먼저 存在가 아니면 안 된다. 自然이 存在라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自然을 存在로 보는 것은 自然에 대한 한 개의 原始的인 規定에 지나지 않는다. 存在는 어느 意味에 있어서 無와 마조선다. 存在는 어느 意味에 있어서 觀念과 마조선다. 自然을 存在로 보는 것은 自然이 無 또는 觀念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意味한다. 自然은 實在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實在의 世界는 運動이 世界다. 그 자신 부단한 運動을 가지는 것이 아닌 한에서 그것은 現實的인 實在는 아니다. 自然은 「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存在의 世界를 보이고 「움죽이는일」을 말으면서 事實의 世界를 보인다. 自然은 부단한 生起變遷을 經過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生起와 變遷. 이것은 自然의 世界가 지니는 嚴肅한 事實인것이다. 이 한 개의 事實이 곧 우리들이 생각하려는 歷史란 것의 진실한 地盤이 아닐가. 歷史의 概念은 時間의 概念. 運動의 概念과 굳게 열매인다. 時間을 떠나서 運動을 떠나서 우리들은 歷史의 진실한 構造를 생각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自然은 그 자신 無常한 變遷을 보이면서 자기를 悠久한 運動이 秩序인 存在의 世界속에서 發見한다. 歷史가 時間性的인 世界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 한에서 같은 時間性的인 世界에서 움직이고 있는 自然으로부터 그것을 갈러내이려한다. 우리들의 첫 번 企圖를 拋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같은 한 개의 流動. 같은 한 개의 事實. 이속에서 우리들은 어느 것을 自然이라고하고 어느 것을 歷史라고 불려야 하는가. 바람이 불고 비가나리는 한 개의 運動. 이것을 우리들은 어느 意味의 歷史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가. 가지가뻗고 넓이 옥어서 크다란 그늘을 이루는 한 개의 生成. 이것을 우리들은 어느 意味의 歷史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가. 歷史를 단순히 運動 또는 過程으로 規定할 때 瓷硯이 보이는 一切의 事實은 그대로 歷史라고 불려서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歷史가 었던 特殊한 性格에있어서 자기를 단순한 存在 또는 단순한 事實로부터 구별한다고 보지 않아서는 안된다. 歷史가 자기를 自然으로부터 구별하는 그 자신의 性格. 우리들은 암만해도 이 歷史 자신의 性格이란 것을 「人間的」인데서 찾는 것 받게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歷史란 결국 人間이 自然을 制約, 變改하는 人間의 行爲를 그 主體로 하고 주어지는 現實의 한 개의 自覺的인 行程에 지나지 않는다.

自然을 客體的인 存在, 歷史를 主體的인 事實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다. 그리 하여 存在는 事實이 同一한 次元에 이쓴 것이 아니고 겸하여 歷史가 自然보다 훨씬 높은 秩序에 屬 한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存在는 본대 存在이면서 事實을 보이고 事實은 그 자신 事實이면서 存在를 그 속에

않는다. 自然은 存在로서의 自然이면서 그 자신의 事實의 世界를 가지고 歷史 또한 存在로서의 歷史로 나타나면서 그 자신의 事實의 世界를 構成한다.

人間은 무론 그 자신 한 개의 自然이기도하다. 存在가 無와 마조설 때 人間이 自然과 함께 同一한 秩序속에 싸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人間은 부단히 自然과 마조서면서 한 개의 새로운 秩序인 歷史의 世界를 가진다. 人間이 자기를 自然으로부터 구별하는 眞實한 性格을 우리들은 「行爲」에서 찾기로 한다. 行爲의 世界. 이것은 人間만이 가지는 어디까지 던지 人間的인 世界이요. 나아가 人間의 歷史적인 「生」이 그 우에서는 現實的 地盤이 아니면 안 된다.

「行爲」는 단순한 生産은 아니다. 우리들이 집을 짓고 우물을 팔 때 우리들은 거기서 行爲를 외운다. 그러나 벌이 꿀을 뚫고 새가 버레를 날 때 그들은 行爲를 經驗하는 것인가. 行爲의 世界속에서 모든 것은 내게 대하여 「물건」으로서가 아니고 「그대」로서 對立된다. 行爲의 世界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그때」를 理解해야 하고 育成해야 하는 崇嚴한 課題를 가진다. 行爲의 世界속에서 思惟는 優越한 意味의 「理解」로 行動은 優越한 意味의 育成, 實踐으로 자기를 主張한다. 行爲는 그 자신의 反省을 가진다. 行爲는 그 자신의 課題를 가진다. 反省을 모를 때 行爲는 단순히 運動에 마치고 課題를 잃으면서 行爲는 사나운 殺伐에 떠러진다. 歷史는 人間이 무단한 反省속에서 었던 眞實한 課題를 가지고 「거러나아가는」 行爲의 經過, 連續이 아닐가. 이 歷史의 主體로서의 人間은 떠러져 있는 個我가 아니고 서로 일키인 「나와남」의 聯關으로 理解되어야 한다.

歷史는 분명히 自然과 마조선다. 歷史는 自然과 마조서면서 아울러 自然과 함께 運動의 秩序인 存在의 世界를 構成한다. 歷史가 어느 意味의 「存在의 運動」인 한에서 歷史의 眞實한 地盤은 依然히 存在가 이니면 안 된다. 그러나 歷史는 行爲에 있어서 자기를 단순한 存在인 自然으로부터 구별한다. 우리들은 이 行爲의 世界를 깊이 反省하는 일에 있어서 歷史性的 構造를 바로 解明하지 않으면 안 된다.

#### 觀念과 現實

現代의 思惟는 그 자신의 었던 性格을 가진다. 움직이는 것을 優越한 것으로 보는 일. 모도를 對立에 있어서 뿐 보려는 일. 모도를 發展에 있어서만 보려는 일.

進化論과 辯證法이 뿌리는 많은 術語들을 들어보다.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의 사람들에게서 깊이 도라 보아짐을 보아보라. 發展, 過程, 展開, 形態, 階段, 止揚, 實踐, 克服, 崩壞, 危機. 우리들은 現代의 思惟가 이런 말들을 만들

어 내었는지 이런 말들이 現代의 思惟를 길러 나아가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現代의 思惟는 분명히 運動의 論理우에섰고 運動의 論理우에서 進化論과 辯證法으로 더부러 깊은 聯關을 맺고 있음을 본다.

사람들이 오늘에 있어서 만치 모도들 運動의 論理, 發展의 論理에 있어서 說明하려고 대여든 時代가 있었을가. 中世紀의 사람들은 「攝理」라는 말로 모도를 說明하였었다. 前世紀에 있었어 「進化」라는 말에 科學이 놀리였고 오늘에 이르러 「現實」 「實踐」이란 말에 哲學이 었쩨 줄을 모른다. 사람들은 觀念에 대한 現實의 優越을 말하고 思惟에 대한 實踐의 優越을 가르친다. 그런데 대쳐 이現實이란 무엇인가 이 實踐이란 무엇인가. 「現實이 一切의 觀念形態를規定한다.」 이때 이 見解자신은 現實인가 觀念인가. 이 見解를 움직일 수 없는 絶對的인 眞理로 받아들리면서 이 久遠한 見解밑에서 자고 깨고 하는 現實主義者가 있을 때 그때 이 見解는 그에게서 現實을 指導하는 것이 되는가.

觀念은 觀念이면서 그 자신 觀念이 된다. 우리들은 觀念的 存在에 대하여 觀念的 事實이란것을 구별한다. 觀念이 있기 위하여는 「觀念하는 일」이 없어서 안 된다. 「觀念하는 일」은 그 자신 어느 意味의 作用이요. 運動인것이다. 이 「觀念하는일」에 있어서 말하자면 存在로서의 觀念이 생겨난다. 우리들은 이 「觀念하는 일」을 여기서 觀想 또는 思惟한다고 부르려고 한다. 觀想은 그 진실한 性格에 있어서 現實에의 通路이다. 觀想에 依해서만, 思惟 또는 反省에 依해서뿐 實在 및 現實은 그것이 人間에게 주어지는 實在 및 現實로 理解된다. 우리들이 思惟이니 反省이 니를 떠나 그대로 얼마동안 무에 무엔지 모르게 움직였다고 하라. 그때우리들은 現實을 따라서 實踐을 經驗한것이 아니라 단순한 질실로 단순한 한 개의 運動을 經過한데 지나지 안는다.

觀念은 부단히 現實속에 숨여들고 現實은 부단히 觀念을 물들인다. 現實이 부단히 움직여 나아가는데 反하여 觀念은 자기를 었편 固定的인것으로만 든다. 觀念은 現實이 남기고 지나간 그때그때의 痕跡같은 것이다. 었편한 개의 痕跡을 남겼을 때 現實은 벌써 그 곁에 있는 現實이 아니고 또 그 곁에 있을 때에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痕跡으로 남겨 있는 觀念은 어데까지던지 그때 그 現實의 痕跡인데서 그 자신의 眞實을 主張한다. 實在나 現實을 떠난 이른바 純粹한 觀念이란것이 있을 것인가. 現實이 움직이는 것이고 觀念이 固定된 것이라고 해서 觀念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들은 움직이는 現實을 움직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의 그림자인 觀念을 움직이는 것의 그림자로 理解해야 할 것이 아닐가.

現實은 흔히 實在 및 運動을 意味한다. 우리들은 實在을 存在로서의 現實이라고 하고 運動을 事實으로써의 現實이라고하여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를 구별하기로 한다. 實在 및 運動이 現實이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人間에게 주어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 人間에게 주어질 때 現實은 자기를 「擔當」하기를 人間에게 要求한다. 現實을 「擔當」하는 일. 이것은 人間の 思惟 및 行動에 있어서 뿐 可能하다. 思惟를 떠난 行動이있는가. 行動을 떠난 思惟가있는가. 비가 나릴 때 우리들은 그것을 한 개의 運動이라고 부른다. 나무잎이 떨어질 때 우리들은 그것을 한 개의 運動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은 이느 意味의 運動이 아닐가.

實在가 存在의 秩序임에 反하여 運動은 事實의 秩序에 屬한다. 事實의 秩序. 이것이 人間에게 주어질 때 人間에게 주어지면서 人間の 實踐을 불러 이 르킬 때 이 事實의 秩序는 現實의 秩序로 불러진다. 비가 내리는 일이나 나무잎이 떨어지는 일은 觀念이 아니고 現實이 되고 사람이 存在를 생각하는 일은 現實이 아니고 觀念이 되는가. 「生産이 一切의 觀念論을 不可能하게만 든다」라고 볼 때 사람들은 現實主義의 正當한 論據를 承認해야한다. 그러나 人間안이 觀念 또는 現實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저서는 안 된다.

#### 現實의 優越

「現實은리이데올로기를 規定한다.」 「헤-겔」에게 있어서 現實은 絶對的 理性의 自己歸還運動이었다. 現實主義에있어서 現實은 었던 것으로 理解把捉되고있는가. 現實主義는 人間の 思惟를 떠나 人間이 그것을 認識하고 알아는 데 붓잡히지 아니하고 嚴然하게 存在하여야있는 實在의世界가 있다는 것을 主張한다. 이것은 現實主義의 가장 오랜 그리고 가장 根源的인 見解이니 우리들은 存在에대한 이 眞實한 理解를 겸손하게 배호지 않아서는 안된다.

人間の 意識을 떠난 客觀的인 實在의 世界. 이것은 「칸트」의 이른바 物自體에 相當한 世界인지도모른다. 客觀的인 實在는 분명히 人間の 思惟와 그것을 全然 理解할길이 없는 었던 彼岸的인것일가. 칸트는 人間の 理性과 이 客觀的 實在와의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久遠한 溝渠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人間이 이 溝渠를 넘어 實在의 世界에 드러서게 되는 어느 意味의 「交涉」같은 것이 없을 것인가. 現實主義는 「칸트」의 構成主義的 認識論에 反對하여 主觀의 客觀에 대한 模寫, 反映을 主張한다.

우리들은 이 客觀的인 實在가 存在한다는 것을 是認한다. 그리고 人間の 認識이란 것이 客觀的인 實在에 대한 理解 把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是認한다. 그러나 이 客觀的인 實在가 곧 現實主義에서 내여 서우는 現實인것인가. 現實主義本來의 主張에 依하면 이 客觀的인 實在는 그 자신 부단한 運

動, 生成을 經過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現實이 「이데올로기」를 規定한다고 말할 때 이見解자신 한 개의 「이데올로기」가 아닐가. 觀念論과 現實主義는 한가지로 「이데올로기」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現實主義의 見解를 빌면 거기에는 서로서로 對應되는 現實이 있어야한다. 觀念論을 낫는 現實과 現實主義를 낫는 現實. 現實의 必然的 制約 밑에서 觀念論버는 現實主義는 構成된다. 現實의 必然的인 制約 밑에서 나 어지는 것인 한에서 觀念論 또는 觀念論者를 나무랄 權利가 있을가. 「칸트」哲學을 觀念哲學 「헤-겔」主義를 觀念主義라고 부르라. 「칸트」哲學 및 헤-겔主義를 觀念哲學 또는 觀念主義로 만드는 었던 現實的 地盤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現實的 地盤은 「칸트」또는 「헤-겔」의 姿意에 依하여 變改되는 것은 아니다. 「칸트」나 「헤-겔」의 진실로 그때의 現實에 忠實히 服從한 그리고 그때의 現實을 忠實히 模寫, 表現한 이들이라고 보아야 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의 現實主義가 칸트를 批難하고 「헤-겔」을 轉倒시켜야하는 理由는 어데있는가. 한 개의 宿命論. 現實主義의 巨大한 迷妄. 「칸트」나 「헤-겔」을 制約하던 現實과 오늘의 우리들을 制約하는 現實이 달려진(發展!)때문일가. 「칸트」나 「헤-겔」때의 「現在」는 觀念論을 容認하고 오늘의 現在는 그것을 拒否하기 때문인가. 「칸트」나 「헤-겔」의 「現下」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칸트의 또는 헤-겔의 世界解釋에 反對해야한다.

칸트哲學의 地盤, 헤겔哲學의 地盤, 現代의 哲學의 地盤이것들을 우리들은 「칸트의 現實」, 「헤-겔의 現實」, 「現代的 現實」이라고 불리본다. 칸트哲學을 批難하려는 이들은 칸트哲學을 批難할것이 아니고 그 地盤인 「칸트의 現實」을 批難해야한다. 헤-겔主義를 轉倒시키려는 이들은 헤-겔主義를 轉倒시킬 것이 아니고 그 地盤인 「헤-겔의 現實」을 轉倒시켜야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었떠케 하여서 이 現實이란 것을 批難 또는 轉倒시킬것인가. 實踐에 依해서 人間은 어느 程度까지 現實을 變改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들이 實踐을 通하여 變改할수있는 것은 우리들이 그 속에 있는 「現代的 現實」이요. 「칸트의 現實」또는 「헤-겔의 現實」은 아니다.

여기까지 이른 우리들은 이약이를 그치고 다시 뒤으로 도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現實이 이데올로기를 規定한다」고 보는 現實主義의 根本命題. 이 命題에 도라가 우리들은 그것이 보여 주는 뜻을 깊이 反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現實이 「이데올로기」를 規定한다고 보는 것이 眞理라고할진대 이 命題는 먼저 그 見解자신에 있어서 適用되어야한다. 現實이 「이데올로기」를 規定한다고 보는 見解 그 자신을 規定하는 現實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現實主義의 說明에 依하면 現實이란 어떤 固定된 「存在」같은 것이 아니라 부단히 움직이는 그리고 부단히 퍼져 나아가는 「事實」이라고 한다. 現實이 한 개의 現實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흔들리는 여러 개의 現實로 밋고 이는 한에서 그것은 「現實이 이데올로기를 規定한다」고 보는 見解에 對應되는 現實로부터 그것과 反對되는 見解에 對應되는 現實에 옮겨가지 않아서 는 안 된다. 오늘의 現實主義가 想像조차도 못하는 全然 새로운 現實에 옮겨 갔다고 하고 이 새로운 現實에 照應되는 見解를 보이는 基本命題가 있다고 하라. 그때 「現實이 이데올로기를 規定한다」는 오늘의 빛나는 命題는 그 자신의 久遠한 眞理性을 主張할길이 없게 된다.

우리들은 여기서 한 개의 「아포리아」에 나선다. 現實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는 見解를 버리거나 「現實이 이데올로기를 規定한다」고 보는 見解를 버리거나 그러치 않으면 「現實이 이데올로기를 規定한다고」보는 이 基本見解 그 자신은 現實의 規定을 밋지 않는 絶對的인 眞理로 보거나. 오늘의 現實主義는 분명히 이 「아포리아」를 푸는 일에 있어서 그 자신의 苦悶 및 光明을 아울러 찾아야 한다.